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양선원의 대행스님께 어루어 응답해 드립니다. 심의 고뇌에 대해서도 신랄해 드립니다.
<규칙>: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 www.hanmaum.org ● FAX: (0343)470-3116

법공양 페이지

한 생각 잘 내는게 불 켜는 일과 같아

23면에서 계속

갔다. 초음파로 진단한 아이의 크기가 정상적인 아이보다 2정도 발육이 느리다고. 건강하다는 말을 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이 아이를 위해 제가 어떤 마음을 내야 할지 큰스님의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답 제 뿌리만이 제 나무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죠? 동그런 씨가 제자리에 가서 앉을 수 있는 것도, 태가 잘못 들어앉았다가 제자리에 가서 앉아 임신이 제대로 되게끔 될 수 있는 것도, 몸을 마음대로 움직여지게 하는 것도 자기 뿌리입니다. 자기 주인공 뿌리만이 움직여지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열심히 관하세요. 관하라는 거는 몸통이 속의 생명들이 그 통신을 받아야 작용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간략하게 얘기하자면, 모든 소임을 맡아가지고 있는 공장장에게 생명들이 명령을 하달 받으려면, 통신을 받으려면 마음속에서 대뇌로 올라가서 정수에 입력이 돼야, 그 입력이 사대로 통신이 돼서 바로 현실로 나오게 됩니다.

좀더 쉽게 말하자면 내 몸 안에 들은 의식들이 내가 주인공을 진실로 믿고 말할 때 통신이 되는 겁니다. 통신이 되면 그 안에서 통신을 받아 가지고 전부 작용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몸이 바뀌어질 수도 있고 마음대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자기에게 닥치는 대로, 용도에 따라서 거기에 모든 것을 맡겨 놓으면 어떤 애고도 불에 타버린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 하고 열심히 관해서 진실로만 들어간다면 금방이죠. 이 멋진 묘법을 말로만, 이론으로만 알지 말고 진실한 실천을 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백년해로 할 여자 찾기 힘들어

문 결혼을 하고자 하는데 정말이지 백년해로 할 여자를 찾기가 힘들니다. 도대체 어떤 여자를 만나야 하는지 난감할 따름입니다. 도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답 길을 가다가 갑자기 어떠한 일이 벌어진다면 누구한테 물고 부탁해야 합니까? 제 삼자가 대신해 줄까요? 모든 문제는 자기가 있으니까 닦쳐오는 겁니다. 자기가 없다면 아무 것도 없는

겁니다. 무효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자기가 있기 때문에 상대가 있으니까요. 보배인 자기 씨를 자기 안에 두고도 허구한날 남을 의지해서 빌어먹으려고 한다면 이보다 답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보배를 자기 안에 두고도 말입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은 일체와 연결되어 있어 아무런 손색이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자리에다가 턱 맡겨놓고 마음 편하게 살아가세요. 그러고는 '오직, 당신만이 나와 우리 가족을 화합하게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인연을 오게 할 수 있다.' 하고 턱 맡겨놓고 사세요. 보이는 것을 가지고 내 사랑으로 판단해서 책정한다면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50%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자리에다가 턱 맡겨놓고 올바른 인연이 저절로 연결되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하십시오. 그리고 조금씩 마음을 쉬세요. 조금하면 되는 일이 없으니까요.

충전 필요할 땐 어떻게...

문 사람으로 몸 받아 태어난 것도 너무나 감사한데, 이렇게나 파스하신 큰스님을 스승으로 만나게 하니, 저를 이끌어준 바로 그 자리에 모든 공력을 회향합니다. 저는 끝없는 집착으로 연유한 슬픔의 맨 밑바닥에서 비로소 길을 되돌아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남아있는 앙금 때문인지 더러 눈물이 나곤 합니다. 언젠가 큰스님께서 아직 전력을 끌어다 쓸 만큼 공부라 되지 못한 사람은 절에 가서 충전을 해가면서 공부해라 하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처럼 정말 충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만 멀리 지원도 없는 외국에 살고 있다보니 그렇게 할 형편이 아닙니다. 일상생활 가운데 늘 관하기를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지만 저처럼 아직 공부가 모자라면서 혼자 공부하는 사람은 충전이 필요할 때 어떻게 해나가야 하는지 가르침을 주시기 바랍니다.

답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용도에 따라서 우리에게 닥치는 일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바깥에서나 안에서나 일어나 칠나 칠나 닦쳐오는지, 어떤 때는 즐거움도 닦쳐옵니다. 어려움만 닦쳐오는 게 아니죠. 그러나 즐거움은 잠시 잠깐이고 그냥 어려운 일만 많이 닦쳐오. 우리 사는 게. 그러니까 그 어려움과 즐거움을 다 송두리째, 즐거움은 감사하게 놓고, 어려움은 되돌려서 맑은 불로 바뀌어서 쓰라는 말을 수차례 했을 겁니다. 아아, 본래 용도에 따라 닦기만 하면 꺼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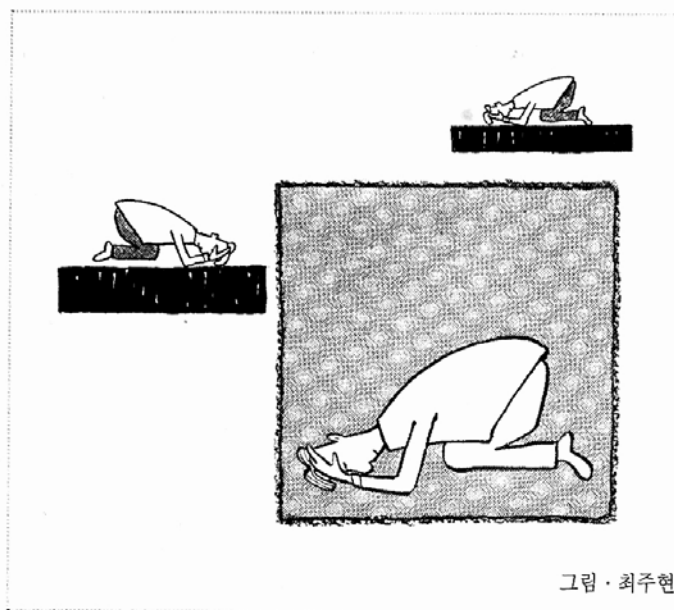


그림 · 최추현

자기 안에 값진 보배두고 왜 빌어먹나 없고 없고 또한 없으니 자유롭게 살라

할 수 있는 것인데 아직은 다 모르니까 충전이 필요하기도 하고 그런 아쉬운 생각에 답답함도 있을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충전됐다, 다 풀려졌다 하는 것도 내 생각일 뿐입니다. 내 한생각에는 외국이나 지방이나 인양이나 하는 말고 가깝고 가 없어요. 이 공부를 하려는 마음에 달려있을 뿐. 멀고 가까운 곳이 없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제가 없어서 멀고 가깝고 가 없기 때문에 능히 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생각이면 벌써 하나가 되는데 뭘 그렇게 주저합니까? 한생각인데 말입니다. 한생각 딱기에 달렸는데... 알고 보면, 멀리 있고 자주 못 와보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한생각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지혜 있는 사람은 넘어설 것이고 지혜 없는 사람은 넘어설 수 없겠지요. 그러니 당신의 근본과 나의 근본이 풀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고, 일체제불과 직결된 그 근본 안에 그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세요.

절하는 횟수 다른 까닭은

문 스님의 가르침에 따라 주인공과 항상 함께하고 있는 중생입니다. 귀하신 가르침에 따라 하다보니 몸과 마음이 편하여지고 집안도 모두 편안해 지는 주인공의 나뭇을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이대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열심히 주인공을 관하여 부와 자가 상봉하게 하는 것이 스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라 생각하고 공금한 것을 질문하겠습니다. 불가에서는 보통 절을 하게되면 삼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를 지낼 때는 이배를 하거나 사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절의 횟수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우리가 삼배를 하는 것은, 하늘과 땅과 인간이 있듯이, 하늘이 있고, 부처님이 있고, 중생이 있고, 또는 하천 세계에 중생이 있고, 보이지 않는 무생이

있고 이리기에 그런 모든 걸 가르치기 위한 방편이요. 그럼 사배는 왜 하느냐? 삼배를 하고 난 뒤에는 전부 일체 사람들과 일체 조상들을 전부 한꺼번에 놓고 하는 거거든요. 하늘, 땅, 인간을 한꺼번에 내 안의 근본과 돌 아나게 놓고 한번은 진짜로 자기를 키워주신 내면의 부모이자 은사한테 하는 거죠. 그렇게 조목조목 이름을 우리 인간이 붙여놓은 거지, 이배다 삼배다 일배다 이렇게 고정돼 있는 건 아니에요.

일체 살아나가는 도리가 바로 한마음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가지고 있는 능력이, 유(有)의 법, 무(無)의 법, 민법을 다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나한테 있으니까 했을 때의 그 능력이 바로 보배예요. 부처라고도 하고요.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일배다 이배다 하기 이전에 마음으로 진실하게 내가 절을 할 수 있는 결심을 가져야 한 번을 하든 두 번을 하든 자기가 몸을 구부릴 수가 있는 거지, 마음으로 구부리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몸이 구부리겠어요. 그래서 안과 밖을 마음으로써 겸손함을 가지고 구부릴 수 있다면 몸도 구부릴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마음이 구부러지지 않으면 몸도 구부러지지 않습니다. 허락이 되지 않는 절요. 그러니 절이 그냥 절이 아니라 바로 진실한 내 마음이지요.

또, 언젠가 내가 절을 네 번 하라고 한 것은 산소에서 조상님의 유품을 이장을 하거나 할 때 정체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삼배하고 마지막 일배는 내 안의 근본에 하나로 모으라는 것을 이야기 한 것입니다. 제사를 지낼 때는 이배를 하는 것이 더 맞겠지요. 그러니 그 횟수에 얽매이지 마시고 지극한 마음으로 하기 바랍니다.

보시의 진정한 의미는

문 보시에는 물질보시가 있고 무주상 보시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보시의 진정한 의미는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것은 본래 갖추어져 있어서 손색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왜냐, 한생각에 천당에 갈 수도 있고 한생각에 지옥에 떨어질 수가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물질로만 남에게 좋은 일을 하기보다도 마음으로 좋은 일을 할 수 있다면 물질의 도움보다 훨씬 더 많은 보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스님네들은 바리때를 들고 다

니면서 공양을 받았습다. 사람들은 먹는 음식이 좋은 나쁜 자기네들이 먹으려고 장만한 음식으로 미리 떠서 준비해 두었다가 스님네들이 오면 공양을 올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어떤 사람이 어쩌나 가난한지 스님네께 드릴 것이 없어서 남의 집에 가서 보리쌀을 씻어 주고 속살 뜯물을 얻어다 폭폭 끓여서 마음 한 그릇을 두었다가 스님이 오시자 공양 올렸습니다. 그것을 받은 스님은 너무나 고맙고 안됐기에 무엇으로 도움을 줄까 생각하다가 나무를 해다 줄 양으로, 산에 가서 나무를 한 짐 해가지고 내려오는데 은사스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신 은사스님께서 뭐 하려고 나무는 해가지고 오느냐고 하시자 이만저만해서 나무라도 해다 주려고 한다고 말씀드리기가 무섭게 지게 작대기를 뺀어 가지고 아랫도리를 내려치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이놈아! 한생각의 무주상 보시가 있거든 어찌해서 잠깐 불쏘시게로 때 버리면 그만인 그런 것을 보시라고 하느냐." 하시는 겁니다. 그러자 그 스님은 나무를 짊어진 채 넘어지니 너무 아파서 눈물을 흘리면서 일어나는데 그러다 문득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아! 스님의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면서 피는 줄줄 흐르지만 기뻐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귀중인지 모릅니다. 그 후에 쌀뜨물을 공양 올렸던 집은 잘 살게 되고, 나중에는 집을 세 농기까지 해서 일관에 소문이 났더랍니다. 보이지 않는 무주상 보시는 무심으로 한생각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중생이기에 모르고, 병고에 시달리니까 못한다고 생각하면서 아무 말이나 하고 아무렇게나 생각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깨우쳐든 못 깨우쳐든 생각을 잘하고 마음을 잘 다스리면서 나갈 수 있는 믿음과 자기를 돌이켜보는 마음이 진실하다면 승명통 컴퓨터에 입력이 되어서 다시금 좋게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나 사회, 국가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것이 과거로부터 각자 지은 대로 입력이 돼 있다가 세상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오는 그 자리에다 다시 입력을 한다면 과거에 입력됐던 것은 송두리째 무너지고, 평화롭고 안락한 자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이 뭐니 하는 것에도 걸림없이 그대로 여려한 것이 바로 열반계에 드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자유인이 되는 길입니다.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해서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으로 다시 탄생을 해야만 어떤 일이든지 해낼 수 있으며 보이지 않는 데서 오고 감이 없이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갈 수 있고 진정한 무주상 보시를 할 수 있는 진짜 사람인 것입니다.

법공양페이지는 동침을 원하는 중년·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중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중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佛紀 2544年 (庚辰年)
부처님 오신날

發願已歸命禮三寶 새 천년 불국토

佛紀 2544年 (庚辰年)
부처님 오신날

진실되게 믿는다면 주인공에게
이것 좀 잘되게 해 달라 저것 좀 잘되게 해 달라 부탁 할 것도 없다.
잘되는 것 안되는 것 모두 주인공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니
"해 달라"가 아니라 "주인공 밖에는 할 수 없다"가 된다.

말로써가 아니라 뜻으로써 이니
마음으로써 한 생각 내는 것이다. 병도, 가난도, 괴로움도 마음으로부터
일어나고 지옥고도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이므로
예를 들어 병고가 닦쳤다면
"이 병고도 전부 내 주인공 밖에는 없앨수 없지"하고 밀어 넣는
것이다. 그러면 일체 보살이 한 찰나에 와서 든다.

- 대행 큰스님 법문 중에서 -

▶ **협찬** : 통인 한의원 원장 박세철 협장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동 4가 445-1
☎ 053-422-4978